

과학기술인의 의식조사(2)

— 국내외 과학자 1천2백69명 설문

개방화시대, 21세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뚜렷한 사명감이 절실한데 그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으며 어떤 의식을 갖고 있나, 국내·외에 거주하는 과학기술자 1천2백69명을 대상으로 서면에 의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설문조사는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으로 박택규(건국대교수), 이결삼(과총사무차장), 그리고 필자가 공동으로 수행했는데 이번 호에는 “연구 및 생활환경”, “과학기술 수준과 미래”, “남북의 과학기술 교류와 통합”에 대한 조사 내용을 소개한다.

“연구비 조달 어렵다” 60.8%
“남북과학교류 필요” 89.8%



閔英基
 (경희대 교수/자연과학종합연구소장)

◇ 연구 및 생활환경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자들 스스로 직무에 얼마나 긍지를 느끼고 있는가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복지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실정 하에서 과학기술자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비에 대한 견해, 연구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대책, 연구성과의 극대화 방안, 연구시설을 비롯하여 생활인으로서 느끼는 생활전반에 관한 환경을 조사했다. 아울러 과학언론에 관한 평가를 통해서 과학기술자들의 과학대중화에 관한 의견도 조사하였다.

최근 3년간의 연구비 5천만원 이상 26%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연구비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17.9%가 ‘5백만원 이하’, 16.2%가 ‘1천~2천만원’, 14.0%가 ‘5백만~1

천만원’, 13.8%가 ‘5천만원~1억원’이라고 응답했다. 3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를 받는다는 응답이 모두 58.4%로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5천만원 이상도 26%나 되어 연구비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근무처별 조사에서는 대학 교수의 23.7%가, 정부기관 연구원의 31.6%가 5백만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천만원 이상은 대부분 30대와 40대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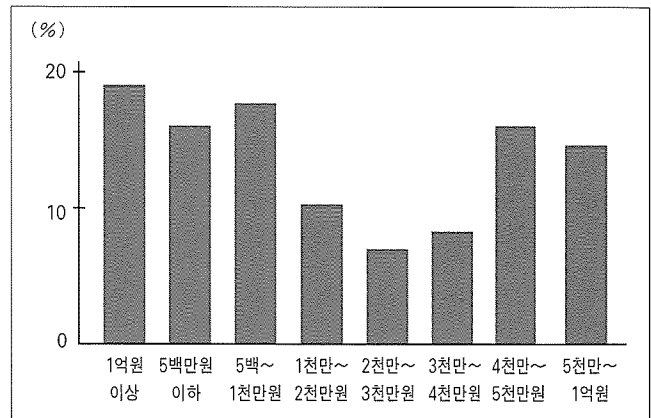
국내외별 조사에서는 3천만원 미만까지가 국내거주자인 경우 전체의 56.6%를 차지하나 국외거주자는 이보다 높은 70.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5천만원 이상을 받았다는 수는 국내에서는 30%에 이르고 있으나 국외거주자는 한사람도 없다는 점이다. <그림 1>

다음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연구비를 받은 기관이 어디냐”는 질문

에 '정부기관'이 반수인 50%이고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기관' (21.5%), '민간기업' (16.6%), '대학' (5.8%), '공공사회단체'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정부 및 국·공립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가 국·공립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반면 30대 이상은 정부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응답했다. 대학에서 받는 연구비는 국외거주자(14.3%)가 국내거주 과학기술자보다 더 많이 받는 것(4.7%)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조달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원활하다'가 5.6%, '비교적 원활하다'가 33.6%로써 연구비 조달에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수가 39.2%인데 반해, '다소 어렵다'가 39.6%, '매우 어렵다'가 21.2%로 어렵다는 응답이 60.8%에 이른다. 따라서 아직도 과반수가 연구비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인식된다. "연구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조건과 제도"를 주어진 11개 항목중에서 3개를 선택하게 하였는 바 '연구비의 증액' (60.9%), '연구시설 확충' (54.5%), '공동연구협력' (35.8%), '연구원 수 증가' (35.1%)를 들었으며 그밖에도 '성과급 증액' (21.6%), '재교육 및 연수' (18.1%), '연구보조원 수 증가' (16.3%)를 답했다. 연구비의 증액과 연구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우선 개선해야 할 점"을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설문에는 '연구수행의 자율성 보장'이 27.3%, '연구분위기'가 24.8%, '연구비 증액'

〈그림 1〉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령 연구개발비



이 20.6%, '연구시설'이 19.0%로 응답해서 이 4가지 항목 모두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수행의 자율성 보장'은 20대가 가장 많이 요구했고 대학교수들이 가장 적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대한 평가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공평'은 0.1%에 불과하고 '공평'이 14.3%, '그저 그렇다'가 63.4%, '불공평'이 16.3%, '매우 불공평'이 5.8%로 전체적으로 평가에 대해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직무에 관련된 생각"을 묻는 여러가지 질문 중에서 첫번째로 "보람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적극 찬성'이 15.8%, '찬성'이 48.9%로 64.7%가 직무에 매우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도 30.9%에 이르며 특히 '반대' 또는 '적극 반대'에 동의한 응답은 5% 미만이었다. 대체로 직무에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7.8%가 '그저 그렇다', 35.9%가 '찬성', 7.9%가 '반대', 6.5%가 '적극 찬성', 1.9%가 '적극 반대'로 응

답해서 대체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한다"에는 '적극 찬성'이 14.1%, '찬성'이 52.2%로 모두 66.3%가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도 26.8%로 나타났다.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적극 찬성'이 11.3%, '찬성'이 57.9%, '그저 그렇다'가 28.6%로 대부분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적극 찬성'이 14.0%, '찬성'이 52.8%, '그저 그렇다'가 30.0%로 대체로 공헌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느냐"는 질문에는 '적극 찬성'이 20.2%, '찬성'이 51.9%, '그저 그렇다'가 25.9%로 대부분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직무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 찬성' 5.1%, '찬성' 41.3%, '그저 그렇다' 45.3%, '반대' 7.3%로 기대 성과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직무가 적성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적극 찬성'이

21.7%, '찬성'이 54.7%로서 전체 응답자의 76.4%가 적성에 맞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는 19.9%, '반대'는 3.2%에 불과하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학 근무자들이 직무가 적성에 잘 맞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구시설과 재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적극 찬성'이 3.2%, '찬성'이 19.8%로 긍정적인 응답은 23%에 불과하며 '그저 그렇다'(46.2%), '반대'(23.5%), 그리고 '적극 반대'(7.3%)가 77% 대부분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성취감'(69.6%), '연구의 자율성'(52.4%), '직무 자체'(36.0%), '인정도'(25.7%), '안정성'(23.9%), 그리고 '보수'(22.9%)를 들어서 보수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첫번째로 "가정생활"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30.8%)과 '만족'(55.2%)이 86.0%이고 '그저 그렇다'거나 '불만과 매우 불만'은 14%에 불과하다. 이는 과학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라 생각된다.

"직장생활의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이 8.4%, '만족'이 54.2%로 모두 62.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0.9%가 '그저 그렇다', 6.5%만이 '불만', '매우 불만'으로 응답하여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직장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연구소보다는 대학에서 높은 만족도가 나왔다.

"여가 및 취미생활의 만족도" 조사

에서는 '매우 만족'이 5.3%, '만족'이 35.5%로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그저 그렇다'(39.8%)와 '불만 및 매우 불만'(19.4%)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으로 응답한 수는 과반수를 능가하는 54.1%였으며 '그저 그렇다'(36.7%)와 '불만 및 매우 불만'(9.2%)은 45.9%로서 만족쪽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학문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6.8%)과 '만족'(48.2%)이 55.0%로 과반수를 차지하여 '그저 그렇다'(35.8%)와 '불만 및 매우 불만'(1.5%)의 37.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또한 대학 근무자들에게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급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1.7%)과 '만족'(21.6%)보다는 압도적인 수가 '그저 그렇다'(43.5%)와 '불만 및 매우 불만'(33.2%)를 택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급여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소와 정부기관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와서 이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연구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1.5%)과 '만족'(23.6%)은 25.1%인 반면, '그저 그렇다'(42.7%)와 '불만 및 매우 불만'(32.2%)이 절대 다수인 74.9%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만족하지 않고 있어 연구비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분위기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6.6%)과 '만족'

(47.6%)이 54.2%로써 '그저 그렇다'(32.7%)와 '불만 및 매우 불만'(13.1%)의 45.8%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간기업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정부기관에서 낮았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6.6%)과 '만족'(47.6%)이 '그저 그렇다'(32.7%)와 '불만 및 매우 불만'(13.1%)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6.3%)과 '만족'(59.0%)이 과반수인 65.0%를 차지하여 '그저 그렇다'(30.4%)와 '불만 및 매우 불만'(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59.5%가 '매우 만족' 및 '만족'으로 응답하였으며 민간기업에서 가장 높은(70.7%) '만족'의 응답이 나왔다. "자녀의 희망 직업"을 묻는 질문에 아들인 경우, '과학자'(34.0%), '교육자'(22.0%), '의료인'(14.8%), '예술가'(6.6%)의 순으로, 자녀가 딸인 경우에는 '예술가'(19.2%), '의료인'(18.9%), '법조인'(15.2%), '교육자'(13.1%)의 순으로 희망하였다. "하루의 PC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2시간이 27.3%, 1시간 이내가 21.7%였으며 5시간 이상도 19.0%에 이르고 있다.

"하루의 TV 시청시간"은 1시간이 65.2%, 2시간이 20.9%로 응답하였다. "언론매체의 과학기술 관련 기사를 얼마나 읽느냐"는 질문에 '흥미있는 기사만 본다'가 58.6%, '전공관련 기사만 본다'가 21.2%, '모두 본다'가 19.1%로 선택적임을 나타냈다.

또한 "언론매체에서 다루는 과학기술 관련기사의 양"에 대해서는 '부족

〈표 1〉 국가간 과학기술 수준 평가

| 순위 | 국가별 백분율(%) | | | | | | | |
|-----|------------|------|------|------|------|------|------|------|
| | 미국 | 일본 | 프랑스 | 중국 | 대만 | 인도 | 멕시코 | 한국 |
| 1순위 | 94.5 | 4.8 | 0.7 | | | | | |
| 2순위 | 5.2 | 73.5 | 21.1 | | | | | |
| 3순위 | | 21.4 | 74.1 | 1.4 | | | | |
| 4순위 | | | | 30.3 | 27.8 | 18.3 | | 20.5 |
| 5순위 | | | | 18.0 | 28.3 | 21.7 | | 30.8 |
| 6순위 | | | | 26.2 | 27.0 | 17.7 | | 22.3 |
| 7순위 | | | | 16.6 | 14.0 | 24.7 | 21.9 | 21.7 |
| 8순위 | | | | 7.3 | 1.9 | 16.1 | 69.9 | 4.8 |

하다' (46.8%), '매우 부족하다' (10.6%), '그저 그렇다' (35.6%)가 93.0%로 절대 다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 관련 기사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매우 높다' (0.6%)와 '높다' (10.9%)는 11.6%에 지나지 않고, '그저 그렇다' (42.8%)와 '낮거나 매우 낮다' (44.0%)가 절대 다수인 86.8%로 정확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 (7.2%)과 '만족' (52.8%)이 60%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 (25.9%)와 '불만 및 매우 불만' (14.1%)은 40%이다.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직장과의 거리' (32.3%), '교통' (14.1%), '문화 시설' (12.7%), '공기' (12.6%), '교육환경' (10.8%)의 순으로 응답했다.

◇ 과학기술 수준과 미래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로 많은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기술과 같은 몇몇 산업기술분야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반면, 기초과학과 같은 순수학문분야는 아직도 질과 양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기초과학에서 응용기술에 이르기까지 10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준을 선진국, 즉 G7국가들의 수준과 비교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하는 가도 알아보았다. 아울러 우리와 비교적

교류가 많은 국가들의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하도록 했다. 우리나라가 G7에 진입하는 시기와 과학이 앞으로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시기 등에 관한 설문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G7 진입시기 빠르면 10년 이내 실현전망

첫번째로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5% 이상이 '매우 낮다' (62.2%) 또는 '낮다' (33.5%)로 응답해서 우리의 기초과학 수준이 낙후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매우 낮다'로 응답한 수도 과반수를 훨씬 넘고 있다(62.2%). "생명과학분야"도 역시 '낮다' (46.7%)와 '매우 낮다' (41.8%)가 절대 다수인 88.5%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과학에서와는 달리 '낮다'가 '매우 낮다'보다 약간 우세하다. "우주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낮다' (68.3%)가 가장 높고 여기에 '낮다' (26.1%)를 합치면 94.4%로 조사한 분야들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서 우주과학기술이 가장 낙후된 분야임을 인정하고 있다. "기계·항공분야"에 있어서는 '낮다'

(56.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낮다' (30.7%)와 합치면 86.8%에 이른다. "신소재 분야"에 있어서도 역시 '낮다' (52.5%)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매우 낮다' (29.0%)로 이 둘을 합하면 절대 다수인 81.5%에 이른다. "반도체분야"는 예상대로 10개 조사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하다' (64.1%)거나 '더 높다' (11.2%)가 전체의 75.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선진국에 뒤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낮다'와 '매우 낮다'라고 응답한 수는 21.5%에 불과하다. "컴퓨터분야"에서는 '낮다' (46.9%)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비슷하다' (40.8%)로 이 둘이 87.7%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는 비교적 수준급에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원자력분야"에 있어서는 '낮다' (52.7%)는 응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비슷하다' (28.7%)로 이 두 응답이 81.4%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매우 낮다'의 응답(11.8%)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토목과 건축분야"에서는 '비슷하다' (45.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낮다' (33.4%)와 '매우 낮'

다'(11.0%)가 높게 나타났다. '비슷하다'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반도체분야에 이어 이 분야가 유일하다. 이는 이 분야의 기술이 어느 정도 국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학 분야'에서는 '낮다'(55.4%), '비슷하다'(23.4%), '매우 낮다'(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하면 71%로 의외로 우리의 의학분야도 아직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의식되고 있다.

이상에서 조사한 10개 분야 그 어느 것도 세계 수준보다 더 높은 분야는 없지만 비슷한 분야는 반도체와 토목·건축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받는 분야는 반도체분야로 나타났다. 세계 선진국 수준보다 낮은 분야는 생명과학, 기계항공, 신소재, 컴퓨터, 원자력, 의학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수준이 낮은 분야는 우주과학기술과 기초과학분야로 평가받았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집중 투자하고 지원 육성해야 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이 조사를 위한 설문으로 13개의 과학기술 분야를 '보기'에 제시하고 응답자가 그 중에서 세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도록 했다. 응답자들이 제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분야는 '환경'(22.7%)이고 그 다음으로는 '화학'(14.7%), '생명공학'(13.9%), '컴퓨터'(11.8%), '에너지'(8.4%) 등의 순이다. 제2순위도 이와 비슷해서 '환경' '생명과학' '화학' '에너지' 순이며, 제3순위도 '환경' '에너지' '생명공학' '화학'의 순이다. 환경은 1, 2, 3 순위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여 환경이 우리가 시급히 집중 투자 및 지원해야 할 분야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국(G7) 수준 진입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27.2%)가 '10년 이내'와 '20년 이내'(23.9%)를 선택했다. 그러나 '15년 이내'(14.6%)와 '30년 이내'(10.4%)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기는 빠르면 10년 이내, 그리고 늦으면 30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과학기술의 수준에 있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8개 국가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들을 과학기술이 높은 순으로 고르도록 했다. "국가간 과학기술 수준 평가"를 요구하는 설문에는 1순위가 압도적으로 미국을 꼽았다. 2순위로는 일본, 3위로는 프랑스, 4순위로는 중국, 5순위 국가로는 한국이 뽑혔고, 6순위로는 대만, 7순위 국가로는 인도, 그리고 마지막인 8순위로는 멕시코를 뽑았다. 이 설문에 대한 백분율 분포는 <표 1>과 같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여러 면에서 우리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반면에 과학기술은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많이 작용해서 우리를 우려케 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이 언제쯤 해결될 것인가를 물었다.

그 첫번째로 "암이 언제쯤 정복될 것이나"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20년내'(32.6%)를 들었고 그 다음은 '10년내'(29.5%)를 들었다.

'5년내'로부터 '10년내'까지는 35.1%, '15년내'까지는 50.9%, '20년내'까지는 83.5%에 이른다. 결국 대부분의 응답자가 적어도 20년내에는 암이 정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불가능'도 만만치 않은 16.5%로 나왔다.

아직은 불치병인 "에이즈의 정복시기"를 묻는 설문에 암과 비슷하게 '20년내'를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했고(38.3%), 그 다음으로는 '10년내'(26.7%)와 '15년내'(18.4%)를 들었다. '불가능'도 12.1%가 있으나 이는 암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하는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나"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20년내'(43.3%)로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10년내'(18.6%)와 '15년내'(18.0%)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적지않은 응답자(16.9%)가 불가능한 것으로 대답해서 흥미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10년내'(52.22%), 그 다음이 '15년내'(18.7%), '20년내'(16.5%), '5년내'(11.8%)의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오염의 해결시기"를 묻는 설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42.0%) '불가능'으로 응답해서 환경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 다음은 '20년내'(33.7%), '15년내'(13.7%), '10년내'(9.9%)의 순이다. "일반인의 우주여행은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20년내'(47.3%)로 답했지만 '불가능'도 41.9%에 이르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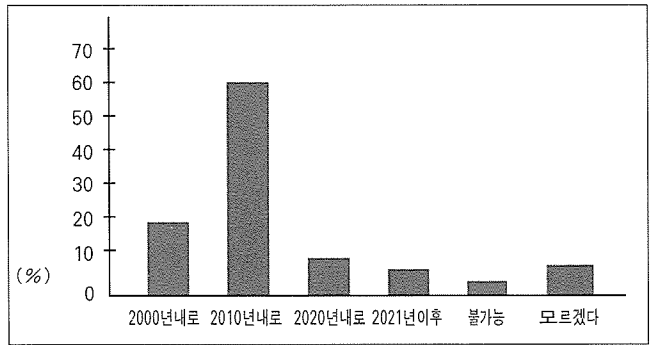
가능성은 반반으로 나타났다. ‘외계의 생명체 발견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불가능’이 52.2%로 절대 다수이고 그 다음으로 ‘20년대’가 32.2%로 이것은 먼 훗날의 일로 여기고 있었다.

◇ 남북의 과학기술 교류와 통합

남북한간의 과학기술 교류와 통합은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통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먼저 “남북 과학기술 교류목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평화공존·긴장해소’(47.4%), ‘통일의 전 단계’(24.4%), ‘상호경제적 도움’(18.9%),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9%)의 순으로 답했으며 ‘북한으로부터의 기술습득’은 극히 미미한 0.3%에 불과하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류분야”로는 가장 많은 수(55.9%)가 ‘농림·축산’을 들었고 그 다음이 ‘기초과학’(49.5%), ‘의·약학’(32.2%), ‘해양·수산’(30.7%), ‘환경’(27.4%)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원자력’ ‘토목·건축’ ‘전자·통신’ ‘컴퓨터·반도체’ ‘기계공학·항공’ ‘화학공학’ ‘산업공학’ ‘조선’ 분야 순으로 꼽았다. “남북한 상호간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교류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추진분야와 마찬가지로 ‘농림·축산’ 분야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54.6%) 그 다음은

〈그림 2〉 남북 과학기술교류시기



‘해양·수산’(39.3%) ‘원자력’(31.3%)분야를 들었다. “남한이 북한보다 앞서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역시 예상했던대로 83.1%가 ‘컴퓨터·반도체’가 가장 많이 앞선 분야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자·통신’(64.8%), ‘의·약학’(35.8%), ‘기초과학’(19.8%), ‘원자력’(19.3%)을 꼽았다.

남북통합 최우선과제는 기술정보교류·용어통일

또한 “북한이 남한 수준에 가장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44.4%가 ‘농림·축산’분야를 1순위로 들었으며 그 다음 순위로 ‘원자력’(41.1%) ‘기초과학’(35.9%), ‘해양·수산’(35.8%), ‘화학공학’(26.3%), ‘항공·기계공학’(26.2%)을 지적했다. “남북 과학기술 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정보 교류’(48.6%)와 ‘과학기술용어 통일연구’(48.1%), ‘남북 산업표준화 연구’(46.9%)를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지적했다. “남북한 사이 가장 적합한 교류방법은 무엇이나”는 질문에는 ‘인적 교류’가 가장 많은 32.2%를

차지했으며 ‘합작투자·생산’이 27.8%, ‘공동연구’가 17.1%, ‘기술정보 교류’가 14.2%, ‘기술협력’이 8.5%를 차지했다. “남북 과학기술 교류전망”에 대해서는 64.3%가 ‘불투명’하게 보고 있으며 ‘낙관적’은 35.7%에 불과해 남북 과학기술 교류전망을 비교적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북 과학기술 교류추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는 55.6%가 ‘상호협력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4.2%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해 대다수의 과학기술자들(89.8%)이 남북 교류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북 과학기술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시기”에 대해서는 다수인 64.5%가 ‘2001~2010년대’ 17.7%가 ‘2000년대’로 대부분이 2000년대 초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우리나라의 통일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5~10년 이내’가 37.6%, ‘11~20년 이내’가 35.6%를 차지해 모두 73.2%가 향후 20년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④